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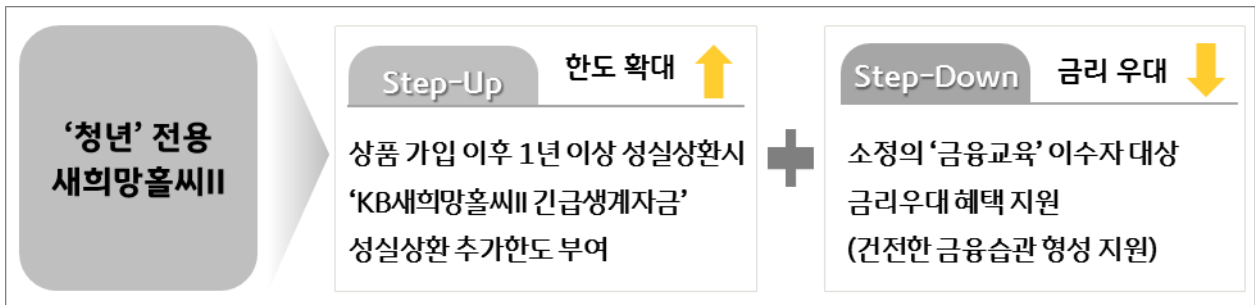
KB금융지주 포용적 금융 이행 방안

1 청년이 미소 지을수 있도록 더 커진 희망금융

- ① 청년·지방·취약계층에 대한 미소금융 확대를 위해 KB미소금융재단에 1,000억원 규모 추가 출연
- 재단에 총 1,000억원 추가 출연으로 ‘청년 미래이음 대출’ 등 미래 설계를 위한 자금 적시 지원
 - 추가 재원 출연을 통해 재단의 안정적 자금여력 확보 및 청년 대상 대출 공급 규모 확대
 - ※ KB미소금융재단에 총 500억원 기출연('09년~'12년)

② 【청년 상품】 「청년 전용 새희망홀씨II」 출시 (Step-Up & Step-Down 프로그램 운영)

- 만 34세 이하 청년층 대상 최대 500만원 범위 내 ‘청년 새희망홀씨II’ 출시 예정
- 성실상환자 또는 금융교육* 이수자 대상 Step-Up(한도 ↑) & Step-Down (금리 ↓) 프로그램 운영
 - ☞ K-뷰티, K-아트 등 청년의 사회 진출 지원



* 금융교육 : 서민금융진흥원, 한국금융연수원 등에서 제공하는 금융교육 콘텐츠

③ 청년 직워커의 두 바퀴에 희망을 담아, 더 나은 미래로 이어주는 금융 지원 [서민금융진흥원 협업]

- [Pilot 운영] 청년 배달 플랫폼 종사자의 경제적 기초 자립 기반을 돕기 위한 「직워커 미소금융」 지원
 - 배달용 이륜차(오토바이·스쿠터, 전기 자전거 등) 구입자금 등 제공(최대 300만원 이내)*
 - * 친환경 이륜차에 대해서는 금리 우대 제공 등 혜택 부여 (전기 오토바이·스쿠터, 전기 자전거)

④ 대부업 이용 금융취약계층 대상 '이자 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크레딧 빌드업(금융 사다리)' 지원

- 크레딧 빌드업(Credit Build-up)을 통해 제도권 금융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단계적 지원

【Step ①】 대부업	【Step ②】 미소금융	【Step ③】 은행권
대부업 이용 차주 '이자비용 지원'	'미소금융 대출상품'으로 대한	'KB징검다리론'으로 대한
금감원 선정 우수대부업체 이용 고객	이자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성실상환자	미소금융 대출 성실상환자
가용 생활자금 확보를 통한 재기 지원	경제적 재기와 신용도 상승 지원	DSR·신용도 개선

2 금융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꿈과 희망을 응원하는 금융 (꿈은 Up↑ 부담은 Down↓)

① 【제2금융권 대한】 「KB국민도약대출」 출시(26.3.20)로 대출 문턱은 낮추고(Down), 새로운 도약 지원(Up)

- 연소득 및 재직기간 조건이 없어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도 신청 가능
- 고객의 실질적인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최고금리 연 9.5% 이하로 제한

② 무거운 이자를 가볍게, 신용대출 '금리 인하'를 통한 이자 부담 완화

-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두 차례에 걸쳐 '새희망홀씨' 총 2%p 금리 인하

시행일	주요 내용	비고
'25.9.26	- 신규금리 1%p 인하	- 금리상한 변경 병행 : 10.5% ⇒ 9.5%
'26.3.6	- 신규금리 1%p '추가' 인하	- 기존 5.47~6.47%에서 4.47~5.47%로 인하*

* 내부 신용등급 3등급, 대출기간 5년 이상 기준

- '가계대출 상품' 금리 인하 확대

시행일	주요 내용	비고
'25.9.26	- '신용대출 채무조정상품(4종)* 신규금리 3.5%p 인하	- 신규(상한)금리 : 13.0% ⇒ 9.5%
'25.11.21	- 가계여신 일부상품** 상한금리 3.5%p 인하	

* 신용대출 장기분할상환, 채무조정프로그램(신용), 휴폐업개인사업자신용대출가계대출채무조정, 개인사업자 리스타트대출

** KB사잇돌중금리대출, KB처음EASY신용대출, KB폐업지원대환대출

③ 금융이력 부족계층의 대안정보 활용 등을 통한 「민간중금리대출」 공급 활성화

- 금융이력 부족자(Thin-Filer)* 전용 「KB 처음EASY 신용대출」 상품성 개선
 - 「대안정보 전략모델**」 및 통신요금 납부정보 기반 「Telco 통신모델」 활용을 통해 대출대상 확대

* 청년, 사회초년생, 주부 등 신용카드 사용이력, 대출 경험이 없는 금융이력 부족자

** 금융·비금융정보, 대안정보를 결합한 신용평가모델

- 신용등급 중위등급 고객 대상 대출 심사시 「소매전략모델」 활용을 통해 대출 대상 확대
 - 신용등급 중위등급에 대해 '정밀심사 전략모델'을 활용해 신용등급을 세분화하여 가계신용대출 심사시 대출한도 추가 부여

※ '23년 이후 KB는 5대 은행 중 약 40% 수준의 중금리대출 취급비중 유지 중
(은행연합회 홈페이지 공시자료 기준)

3 연체 채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해 더 넓어진 금융

① 금융기관 자체 채무조정 대상을 5천만원까지 전격 확대 ('25.9.26~)

- 개인채무자보호법('24.10.17 시행)상 금융기관 '자체 채무조정 확대' 운영 (은행권 최초)
 - 개인채무자보호법 기준 3천만원 미만 연체자에 대한 금융기관 자체 채무조정을 '5천만원 이하 연체자까지 확대'하여 자체 채무조정 (KB채무조정 전담조직 운영)

구분	기존	확대	비고
채무금액	- 계좌 기준 3천만원 미만 연체	- 계좌 기준 5천만원 이하 연체	금액 확대
지원대상	- '24.10.17이후 연체 발생 (개인)사업자	- 현재 연체중인 (개인)사업자	대상 확대

② 청년, 사회적배려대상자(고령층, 장애인 등) 등 1.2만명 대상 최대 90% 채무감면으로 재기 지원 ('26.3.3)

- ※ 만 34세 이하 청년 등 약 1.2만명 대상으로 2,785억원 규모 채무감면을 통해 정상 금융거래 지원
- 서민·취약계층, 개인채무자보호법 채무조정 대상자 등 심사를 통해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
 - 5년 초과한 미수이자를 보유한 차주 대상 잔여 채무 소각

○ 서민·취약계층

- 대상 채권 : 원금잔액 5천만원 이하인 '26.2월말 기준 편입 5년 초과 개인 특수채권
- 감면 대상 : 만 65세 이상 고령층, 만 34세 이하 청년층 등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

○ 개인채무자보호법 채무조정 대상자

- 대상 채권 : 최초약정금액 3천만원 미만인 '25.4월 이후 편입 개인 특수채권
- 감면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상이등급 판정자, 노숙자 등 원금의 최대 60%까지 감면

○ 소액 장기연체자

- 대상 채권 : 잔여 원금 0원이면서 이자만 남은 '26.2월말 기준 편입 5년 초과 특수채권
- 감면 내용 : 잔여 미수이자 전액 소각

[KB 채무조정 전담조직]

구분	주요 내용
역할	- 채무조정 실행을 통한 연체 차주 정상화 지원 - 자체 채무조정 불가 차주에 대한 신용회복위원회 등 외부 채무조정 절차 안내
채무조정 대상채권	- 개인채무자보호법 대상은 대출약정금액 3천만원 미만 개인 금융채권이나, KB는 대출약정금액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개인 신용대출까지 대상 확대
채무조정 요청권 안내	- (개인채무자보호법 대상 차주) 연체 5영업일 해당일에 카카오 알림톡/LMS 안내
채무조정 요청·접수	- [비대면] '모바일앱' KB스타뱅킹 또는 KB기업스타뱅킹 - [대면] KB희망금융센터 또는 영업점 접수(디지털 소외계층의 경우)

4 '신용 상담'에서 '마음 치유'까지 One-Stop 재기 지원

① 수도권을 넘어 '지방'으로, KB희망금융센터 총 6개로 확대 (재기 지원 인프라 구축)

- 취약계층 대상 신용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KB희망금융센터」 운영 ('25.12.17 개점)
 - 금융회사가 채무자 스스로 자력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 신용·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선순환 금융 재기 지원 프로그램(신용상담 & 채무조정 & 심리상담서비스)' 운영

신용상담 및 채무조정	- 신용점수 및 대출현황 분석을 통한 신용문제 컨설팅 - 은행 자체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위원회, 새출발기금 등 채무구제 제도 안내 등
마음돌봄 심리상담 서비스	- 채무로 인해 불안감을 겪는 채무자를 위한 '마음돌봄 상담서비스' 제공* - 신용회복위원회 MOU를 통해 전국 EAP협회와 연계한 심리상담 서비스

* 제공 현황 : 심리 상담 2,433건('25.12월~'26.3월 기준) / KB에서 5억원 지원

- 「KB희망금융센터」 확대 ('26.4월) ※ 기존 2개 ⇒ 6개로 확대
 - 【기존】 2개(서울상도동, 인천연수중앙) ⇒ 【추가】 지방 4개 (부산·대전·대구·전주)

5 돌봄·청년·지역까지...국민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사회공헌

① 【돌봄】 생애 주기마다 든든하게 KB가 완성하는 「모두의 돌봄」

- [아동] 학교 안팎, 주간·야간 포괄하여 아우르는 촘촘한 지원체계 구축
 - 초등 돌봄교실('18~'22년, 총 2,265개 교실) 및 방과후 돌봄('23~'27년, 거점형늘봄센터 총 73개) 등 학교 내 돌봄 인프라 구축 지원에 이어, 야간 연장돌봄으로 학교 밖 돌봄(지역사회 돌봄시설)까지 지원 ('25년~ 3년간, 60억원/343개소)
- [청소년] 지역아동센터·청소년센터 리모델링 및 활동비 지원('16년~, 340개소)
- [시니어] 시니어 맞춤형 돌봄시설(퇴원 어르신 회복지원 단기주택) 구축 지원('25년~, 12개소)

② 【청년·지역 균형】 성장의 과실이 청년세대에도, 지방에도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인프라 지원

- [자립준비청년] 역량강화(자격증 취득, 취업 컨설팅 등) 및 자립생활관 시설 개선('25년~, 399명/10개소)
- [IT인재 육성] 청년 SW·AI교육 프로그램 제공('22년~, 1,050명)
- [취약계층 청년 인재양성] 청년 성장지원금(학원비, 교재비 등) 및 멘토 프로그램 지원('21년~, 794명)
- [지방 균형발전] KB작은도서관 신규 조성(리모델링) 및 도서 공급*('08년~, 누적 143개소)
 - * 지역서점 통해 도서 구입 후 해당지역 도서관에 도서 공급
- [지방]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해 햇빛소득 마을 태양광 패널 무상 설치 지원('26년~ 3년간, 16억원/12개소)

③ 【중소기업·사회 안전망 지원】 시설·운영 안전 및 전세사기 지원

- [중소기업] 안전한 작업 환경을 위한 중대재해 예방 지원('26년~ 2년간, 70억원/약 1,000개사)
 - 안전기술 보유 기업을 지원하고, 해당 기업을 통해 현장 개선 필요한 중소기업(영세사업장 등)에 서비스·제품* 지원
 - * 산업안전 관련 서비스 컨설팅·교육(시설물 안전관리, 산업안전 교육 등) 및 제품(안전조끼 등)
- [전세사기 피해자] 법률 비용(집행권원 확보비용) 및 경공매 대행 수수료 지원('24년~, 7,606명) 등
 - 「전세사기 피해 상담」 전담 영업점 운영(전국 14개 지점)
 - 전세사기 피해예방 캠페인(웹예능 콘텐츠) ('24년~, 4편/누적조회수 600만회)